

순천시, 존중받는 노후위해 ‘New 돌봄 모델’ 만들다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시행 중...케어안심주택으로 어르신 돌봐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전남 유일의 도시다. 반면 도·농 복합도시로서 노인인구와 더불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생활권은 이미 초고령화가 되었다.

이로인해 가족돌봄 부담과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과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차별없는 건강돌봄, 보편적 가치 지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마땅히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주거환경이 불편해도 치료가 아닌 영양의 목적으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많아지고 있다.

시는 퇴원 후 집으로 복귀해도 일상생활과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다. 살던 지역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정서를 교감하며 선택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제도로 부족했던 복지 수요를 보충하고 분야별 공급 주체들의 서비스를 한데 모아 건강, 의료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돌봄모델을 만드는 통합돌봄 정책

을 새롭게 도입했다. 케어안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순천시가 재정을 지원해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해 어르신들을 케어한다. 세대별 사생활이 보장된 원룸형 독립생활 공간이 있으며, 식사와 건강, 여가 프로그램에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집에서는 퇴원 후 6개월간 지내는 중간집으로 주거, 건강, 영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회복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특히 건강관리도 하면서 식사와 미술치료, 텃밭 가꾸기 등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정서적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는 주거와 돌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케어안심주택을 장기거주, 단기거주, 공동체생활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해 순천형 돌봄 주거 모델로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운동지도, 올바른 약 복용 지도까지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가 직접 상담 진료하고 약 처방

까지 한번에 해결하고 단순 의료품은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로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병원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취약 지역에 돌봄 공동체와 돌봄 인프라를 더 확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한옥 토방개선, 화장실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안전 편의시설로 고령 노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과 병원 이동시 동행하고 안전도 살피는 돌봄 활동단도 파견한다.

그 밖에도 대면·비대면을 병행한 스마트돌봄, 미용서비스, 교통카드지원, 방역, 청소 등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문제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자원과 민관 협업체를 구성하여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 보건, 주거와 관련 된 부서와 병원, 의료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 공공·민간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내 복지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함평 월야면, 만수무강 장수효도(영정)사진 나눔사업

주민참여형 민관연계 사업으로 어르신 100명 대상 진행



함평군 월야면(면장 백인상)이 지난 17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수무강 장수효도

도사진 나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민관연계 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월야면에 실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중 주민등록상 80~85세로, 매월 1회(셋째 주 수요일) 총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백인상 월야면장은 “장수효도 사진 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장수효도사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시민 청원자와 면담

“복지관 컴퓨터 설치 등 시설 및 운영 개선 요구”

권 시장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박차 가할 것”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5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시장에 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 개선을 바라는 시민 청원인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진신마비 장애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00 씨는 지난달 12일 시청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했고,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이달 1일 성립 요건을 갖췄다.

청원 내용은 크게 5개로 ▲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경증·중증장애인 컴퓨터 ▲ 식당 운영 개선 및 복지관 지원 관련 정보 제공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대기기간 단축 ▲ 주차장 비가림 시설 및 차단기 설치 ▲ 미평 수원지 무장애길 개선이었다.

이날 권 시장은 청원인에게 “현재 복지관에 간이 컴퓨터를 운영 중인데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별관 신축 시 공간 재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복지관 지원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대기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1인 치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대기기간을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차장 비가림막은 올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차단기 설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평 수원지 무장애길 개선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숲길 등에 평탄 작업을 추진하고 일부 구간은 데크길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전남 권역 재활병원이 2023년 건립되면 장애인 의료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청 홈페이지 청원방에 글을 게시하고 20일 내에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장이 직접 청원자와 면담하는 공약·소통 시책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31건의 청원이 등록됐고, 이중 8건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기동취재본부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

